

'97년 '98년 부산문화계 10대 TOP NEWS

부산시립극단 창단공연

뮤지컬

원작/이현대

연출/김동규

작곡/박철홍

자갈치

MUSICAL



'98. 4. 25(토) - 29(수)

(토·일요일 ① 오후 3:00 ② 오후 6:30 평일 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

뮤지컬 자갈치

CAST

큰손/전성환, 갑이/호민, 순덕네/정행심, 기장대/박은경,
 함흥택/손경하, 제주대/이현숙, 장선장/이상복, 백사/이재용,
 양씨/박찬영, 커피행상/박동민, 점쟁이/이돈희, 경준/문호진,
 육쟁이할매/임해연, 경준모/이현주, 윤과부/이진희, 보배/김은희,
 중매인3/최강호, 중매인7/정성우, 중매인11/문성환, 중매인17/어주선,
 중매인22/김준현, 상인1/문지연, 상인2/이주희, 상인3/이주영,
 상인4/오미경

STAFF

원작/이현대, 연출/김동규, 작곡/박철홍, 드라마트루거/이윤택,
 연기지도/전성환, 김경화, 기술지도/허영길, 기획/김진호,
 조연출/김만중, 무대감독/정순지, 안무지도/박소연, 음악지도/문성환,
 무대디자인/김동희, 무대제작/조영익, 음향/정정식, 효과/양명철,
 조명디자인/홍성모, 조명/한원조, 의상/안명숙, 소품/이둘자,
 분장/이지원, 영상/김창순, 편집/김현곤, 촬영/권구봉, 사진/김홍희

주최/ 부산광역시 MBC 부산문화방송

후원/ 釜山日報社 국제신문 부산매일신문사

특별후원/ 롯데백화점 (株)承甫廣告 한주 피자 안주 (주)서울국제위성뉴스

BUIL PRODUCTION 코포 스튜디오 두보서적 社団法人 釜山지갈치 文化觀光觀察

부일이동통신 최고를 만들어가는 금융서비스 컴퓨터의 모든것
 주서진파이낸스 SEOJIN FINANCE CO., LTD. 샹거리 가이컴퓨터 도매상가

작가의 변



이 현대

배정고등학교 교사
부산극작가협회 회원

자갈치와 나와 의 인연의 깊이

초등학교 시절 영도에 살았는데 우리집근처에 선착장이 있었다. 어느 날인가 친구 따라 나섰다 가 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였다. 선착장입구에서 그 친구는 겁없이 무임승선을 제안했다. 나쁜 모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친절하 주의를 주면서 격려했다. 혼잡함을 이용할 것, 가능한 한 여자뒀을 따라갈 것, 겁을 내지말고 대담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일 것, 만약에 들기면 크게 엄마 소리를 낼 것, 등등. 그 친구의 세심한 가르침과 등두더림에도 불구하고 난생 처음 큰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내 가슴이 얼마나 요동을 치던지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노라면 나도 모르게 담배를 꺼내 물곤 한다. 하여튼 그날, 그 배는 자갈치로 가는 통통 엔진소리 사나운 나룻배였다. 다행히 선원아저씨에게 들리지 않고 눈깜빡할 사이 도착한 미지의 땅 자갈치! 배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나를 마중하며 달려온 것은 진한 배기름냄새, 실새없이 터져나오는 아줌마들의 고함소리였다. 친구는 자기 옷을 꼭잡으라 하였다. 자갈치의 그 많은 사람들, 산더미 같은 물건들 사이를 헤집으며 눈요기를 하는 동안 내내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간도 잊고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자갈치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요 충격 그자체였다. 난 그렇게 자갈치를 첫 경험했다. 그날 나의 자갈치는 콜롬부스의 서인도제도였다. 그 이후 자갈치와 나와 의 인연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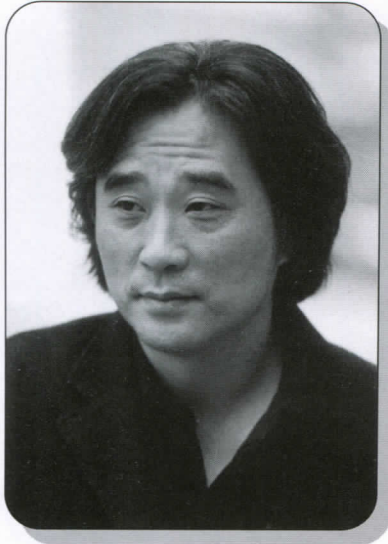
영도에서 충무동으로 이사를 온 후 중,고등학교 시절의 자갈치는 나의 놀이마당이였다.

청년기의 자갈치는 고래고기와 술과 대화로 지낸 연극마당이였다. 장년기에는 찌들린 생활에 활기를 보태기위해 쉬엄쉬엄 찾는 도피마당이였다.

현재의 자갈치는 내 인생의 온갖 경험들이 축적되어 만들어낸 연극 무대의 자갈치로 바뀌어졌고 결국 나를 극작가라는 혹은 달게 해주었다.

자갈치를 시립극단 첫공연작품으로 선정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시는 김동규 교수님 그리고 단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 큰획을 그어준 자갈치 그리고 시립극단 여러분 영원 무궁하십시오.

작품분석



드라마트루거/이은택

극작 연출/우리극연구소장
연희단 거리패 가마골 소극장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객원교수
경성대 연극영화과 겸임교수

자갈치

새로운 시민연극 시대의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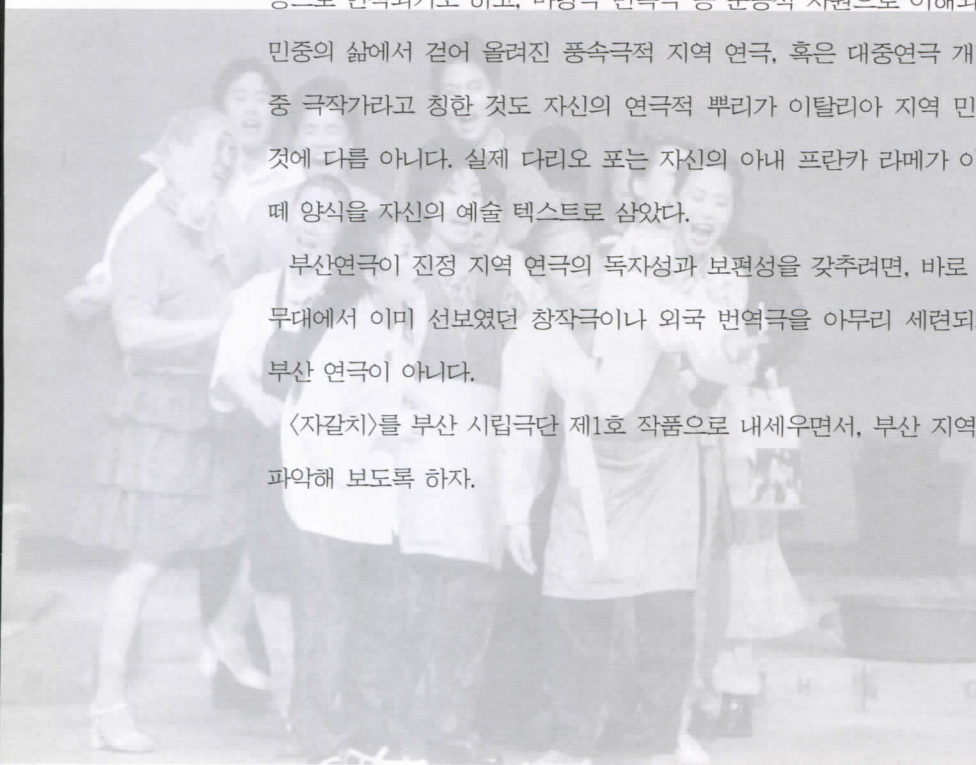
JA GAL CHI

거름 태어나는 부산연극 제1호

〈자갈치〉가 부산 시립극단 창단 공연 작품으로 결정되고, 극작가의 대본을 처음 읽는 순간, 〈자갈치〉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민중극 양식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민중극이란 일반적으로 거친 연극, 통속적인 대중극 등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마당극 민족극 등 운동적 차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본래적 의미의 민중극은 지역 민중의 삶에서 걸어 올려진 풍속극적 지역 연극, 혹은 대중연극 개념으로 출발한다. 다리오 포가 스스로를 대중 극작가라고 칭한 것도 자신의 연극적 뿌리가 이탈리아 지역 민중 순회극단들의 삶과 예술에 있음을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 다리오 포는 자신의 아내 프란카 라메가 이끄는 라메 극단의 민중극 코메디아 델라르페 양식을 자신의 예술 텍스트로 삼았다.

부산연극이 진정 지역 연극의 독자성과 보편성을 갖추려면, 바로 부산의 독자적인 연극이 있어야 한다. 서울 무대에서 이미 선보였던 창작극이나 외국 번역극을 아무리 세련되게 무대에 올려도 그건 서울연극의 아류지 부산 연극이 아니다.

〈자갈치〉를 부산 시립극단 제1호 작품으로 내세우면서, 부산 지역 민중극, 혹은 대중극으로서의 연극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민중극, 혹은 대중극 양식

민중극, 혹은 대중극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장르적 개념은 단순 명료성, 풍부한 즉흥성, 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열정과 투쟁, 사랑을 통한 문제의 해결, 낙관적 삶의 지혜 제공 등이다. 근본적으로 민중연극은 문학적 대본에 의존하는 연극이 아니다. 다리오 포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본이 자신의 개인적 문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리오 포의 극단은 상황만 주어지면, 배우와 스태프 상호간의 약속과 주고 받은 메모판으로 연극을 해 나가기도 했다. 대본은 오히려 현실적 문제들과 심심한 지역언어들이 동원되었다. 이현대 극본의 <자갈치>는 극적 구조의 단순 통속성, 지역방언의 과감한 수용, 역사 현실적 무대를 배경으로 한 낙관적 세계인식 등 범속한 대중극, 혹은 민중극의 구성을 잘 갖추고 있는 대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개인적 고뇌 등을 다룰 이유는 없다. “연극은 몇몇 소수나 단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연극은 비천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동시에 세상에 대한 전체적이고 드높은 관심을 고취시키면서 민중 모두에게 강렬한 공동체적 의식을 결집시킨다.” 프랑스 뷔쌍 지역의 민중연극 주창자 뽀페세르의 견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지역 연극의 방향이다.

부산 시립극단 제 1호 연극 <자갈치>는 그점에서 어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통속성을 지닌다. 줄거리 구조의 단순 통속성이 문학적 상투성으로 지적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풍부한 연극적 보편성을 제공한다. 시민들 누구나 이해하고 감정적 일체감과 의식의 결집을 모을 수 있는 연극, 이것이 연극 <자갈치>의 양식적 특성이며 미덕이다.

JA GAL 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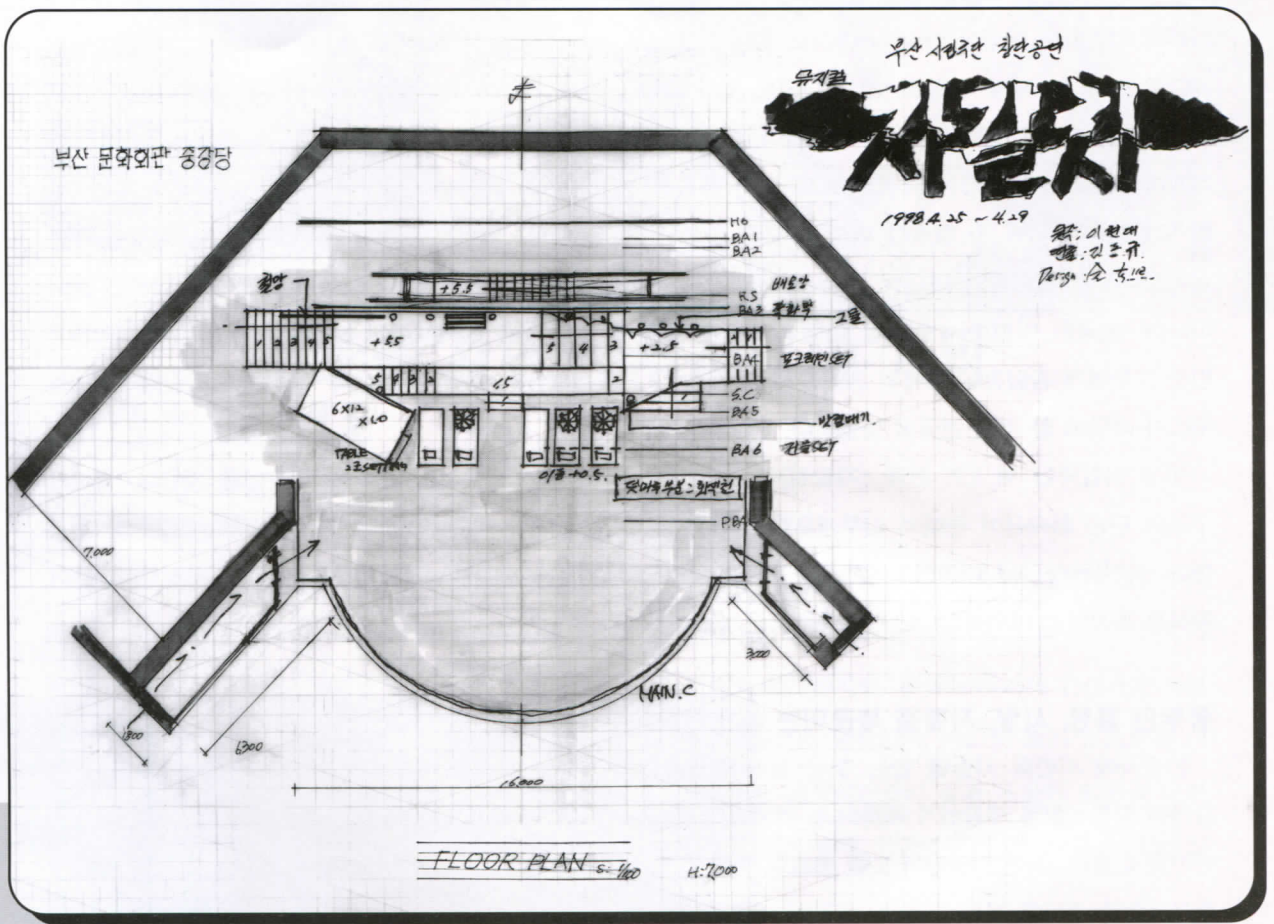
자갈치

풍부한 열정, 사랑, 지혜를 제공하는 시민연극으로

민중극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것은 철저한 배우연극이기 때문이고, 배우들의 열정과 신명이 관객들에게 생생한 극장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배우들의 연기는 말에 제한되지 않는 풍부한 즉흥성과 춤, 노래, 익살의 난장을 이룬다. 이때 지역언어 또한 중요한 극적 요소로 수용된다. <자갈치>가 뮤지컬 형식을 띠고 지역 방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도 오늘의 시민연극으로 거듭나는 대중성을 지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시도가 얼마만큼 수용되고 무대 위에서 실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실제 공연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다. 공연 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두가지다. 뮤지컬이란 이름을 붙일 만큼 뮤지컬적이었는가? 그리고, 뮤지컬이라 애써 이름 붙일 이유가 있었겠는가. 이 문제는 일단 음악의 평민성과 뮤지컬 자체가 미국 문화의 수입양식이란 점에서 별스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애써 뮤지컬이라 이름 붙일 이유도 없다. 미래지향적인 연극에 음악과 춤은 필연적인 연극의 요소일 뿐이다. 배우들의 연기적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말에 갇힌 감성을 해방시키고, 말과 몸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연기 능력, 풍부한 즉흥과 신명의 요구는 기존 연기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존 연극, 서구 이식적 연극사를 극복해야 하고, 그 극복의 계기는 지역 연극의 새로운 기운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부산시립극단 창단은 단순히 열악한 지역연극의 활성화란 차원을 넘어서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한국연극의 새로운 기운,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연극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무대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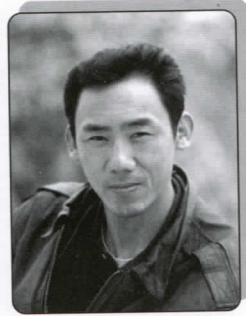
자갈치



CAST



큰손 / 전성환



같이 / 호민



순덕네 / 정행심



기장덕 / 박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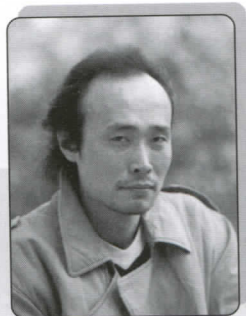
함홍택 / 손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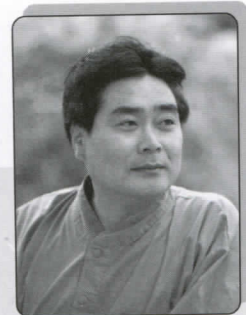
제주덕 / 이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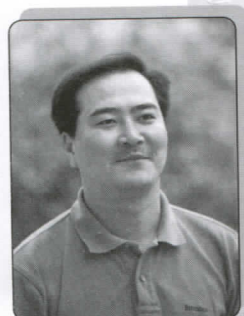
장선장 / 이상복



백사 / 이재용



양씨 / 박찬영



커피행상 / 박동민



점쟁이 / 이돈희



경준 / 문호진

자갈치

CAST



육쟁이할매 / 임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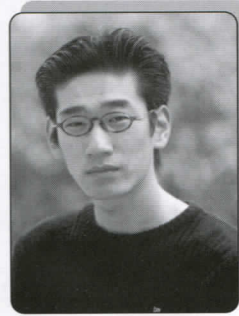
경준모 / 이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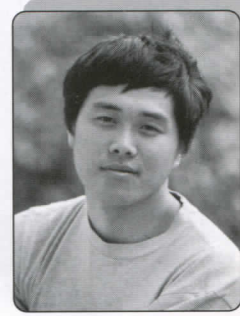
윤과부 / 이진희



보배 / 김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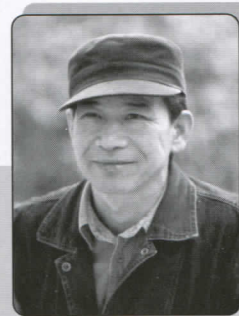
중매인3 / 최강호



중매인7 / 정성우



중매인11 / 문성환



중매인17 / 어주선



중매인22 / 김준현



상인1 / 문지연



상인2 / 이주희



상인3 / 이주영



상인4 / 오미경

자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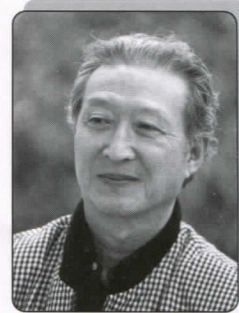
JA

HI

STAFF



원작 / 이현대



연출 / 김동규



작곡 / 박철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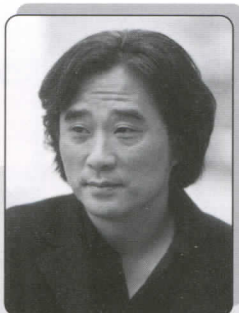
기술지도 / 허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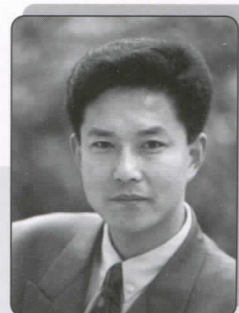
연기지도 / 전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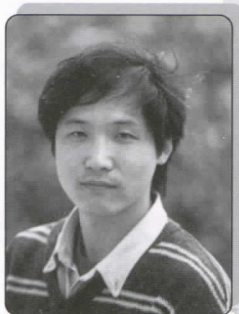
연기지도 / 김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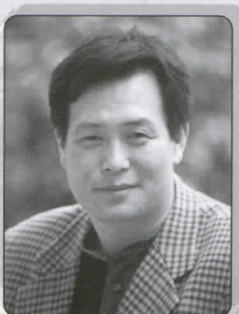
드라마트루거 / 이은택



기획 / 김진호



조연출 / 김만중



무대감독 / 정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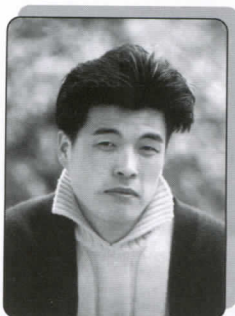


안무지도 / 박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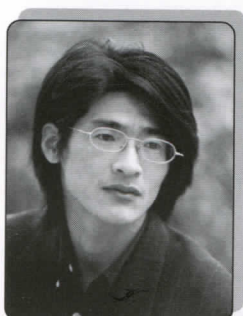
자갈치

JAGAL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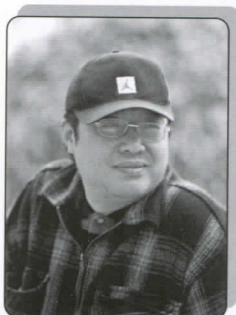
STAFF



음악지도 / 문성환



효과 / 양명철



조명디자인 / 홍성모



의상 / 안명숙



소품 / 이돌자



분장 / 이지원



영상 / 김창순



편집 / 김현근



촬영 / 권구봉



사진 / 김홍희

자갈치

JA

HI

부산광역시립극단 창단

慶 부산광역시립극단 창단식 祝



❖ 창단일: 1998년 1월 23일(화)

• 예술감독위원장/ 김동규

- 예술감독위원/ 허영길 • 예술감독위원/ 전성환
- 예술감독위원/ 김경화 • 예술감독위원/ 이운택
- 총무/ 정순지 • 기획/ 김진호
- 단원/ 이상복, 박찬영, 이돈희, 임해연, 정행심,
호민, 이재용, 이현주, 김은희, 문호진

JA GAL CHI

자갈치

차기공연예고

❖ 제2회 정기공연

- 작품명: 노부인의 방문
- 원 작: 뒤렌 마트
- 연 출: 이 성 규
- 일 시: 1998년 8월 8일(토)~12일(수)
- 장 소: 부산문화회관 증강당

❖ 제3회 정기공연

- 작품명: 리어왕
- 원 작: 셰익스피어
- 연 출: 이 운 택
- 일 시: 1998년 11월 27일(금)~12월 1일(화)
- 장 소: 부산문화회관 증강당

